

부채농가 지원 경영회생사업 호응도 ↑

농어촌공 전북, 올해 연말까지 어려운 농가에 195억원 지원... 환매시 대금 70% 3년간 분할 상환

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부채농가 지원 경영회생사업이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부는 5월 현재까지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5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6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1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 사업이 도입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채농가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전북 관내지역에 5월 현재까지 1,252농가가 2,875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한편,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대금의 30%

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회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췄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 '우리쌀 컵 죽' 편의점 진출

세븐일레븐 매장에 최소 8만개 초도 납품 키로

전북에서 생산된 '우리쌀 컵 죽'이 전국 구석구석을 누빌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3일 도내 창업기업인 컵 죽 전문업체 (주)푸르름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진출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인 푸르름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전국 8,700여 세븐일레븐 매장에 최소 8만개의 컵 죽을 초도 납품할 예정이다.

일괄납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점은, 이례적으로 컵 죽 전용 진열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식품업체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주)푸르름은 초기 납품 물량만으로 6000만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하반기 추가 발주까지 이어지면 한 해 동안 수억 원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수요층을 적극 공략해 향후 판매경쟁

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북센터는 지난해 주최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푸르름과 인연을 맺어 사업 초기단계부터 판로, 마케팅까지 사업파트너로 동행하며 전국 최초의 죽 컵 죽 개발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가장관심(HRM) 분야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성장사다리 펀드 등 3억원의 투자 조성과 함께 미국, 나이지리아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펼쳐왔다.

이와 더불어 전북센터는 공영홈쇼핑과 대형마트 입점 등 컵 죽의 추가 판로확 확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센터 관계자는 "푸르름 컵 죽은 아이디어 하나로 농식품분야 창업의 길을 개척한 사례"라며 "이처럼 도내 전략산업분야를 극대화하는 창업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중국 수출 막힌 全北産 김, 캐나다에 '첫 수출' 길 열어

완주 김 전문 업체, 매달 컨테이너 3대 물량 수출 예정

사드배치에 따른 여파로 중국 수출이 막혀 있던 도내 김 제품이 캐나다에 첫발을 내딛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완주군에 소재한 부부식품 제품이 연간 80만불, 40컨테이너 규모로 캐나다에 수출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1차 컨테이너 선적을 시작으로 24일 2차 컨테이너 1대가 추가로 수출길에 올랐으며, 앞으로 매달 컨테이너 3대 물량이 수출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사드배치에 따른

여파로 2월 이후 중국 수출이 막혀있던 도내업체를 바이어와 연결해주며, 캐나다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 줬다.

경진원은 20여개국 현지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해당 바이어를 전북도 글로벌 통상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도내 우수 상품을 꾸준히 제안하는 등 도내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37.3%의 가격상승을 보인 시장 상황에서도 바이어의 구매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물품을 발굴할 수 있었으며, 실무자가 직접 도

내업체를 방문해 생산현장과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바이어의 매칭을 이끌어 냈다.

완주군에 소재한 김 전문 업체 부부식품은 수출에 앞서 디자인과 포장 등 현지 시장에 맞춰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캐나다 수출에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이번 수출은 대중국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뤄진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부부식품은 지난 2003년 일본에 김 제품을 수출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LA한인타운에 수출을 성사시켰다.

한편, 경진원은 지난 3월 제1회 해외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통해 GMT(인

도)사와 콜레어의 150만불(3년간), 월드뷰브사(일본)와 휴면피아 코스메틱의 200만불(3년간)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8일과 10일 각각 1차 물량이 선적된 바 있다.

더불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포스트차이나 위주의 20여개국 바이어를 초청해 오는 6월 27일 제2회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경진원 홍용용 원장은 "이번 수출은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한편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모바일 항공권 예매 할인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이른 휴가를 계획 중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예매 시 할인혜택에 대한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3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오키나와와 삿포로를 제외한 국제선 전 노선 최대 10,000원 할인 및 국내선 전 노선 최대 5,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해당 탑승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반드시 모바일 웹이나 앱을 통해 예매해야 추가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이벤트기간동안 모바일에서 6월 출발 항공권을 예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무료항공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총 6명을 추첨하는 이번 이벤트에는 동남아 항공권 1명, 일본 항공권 2명, 국내선 왕복항공권 3명에게 1인 2매씩 왕복항공권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starjet.com)와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근 성수기



기간을 피해 이른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늘고 있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추가 할인 받고 무료 왕복항공권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농진청,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 연구개발 방안 마련

농촌진흥청과 국내 대학이 함께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농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융합 연구개발(이하 R&D) 방안을 찾는다.

농촌진흥청은 23일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대학 산학협력단장을 초청해 융합연구 강화를 위한 의견 교환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행사를 개최했다.

제안된 의견 등은 다음해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 융합 R&D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현황과 공동 연구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업과학관,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곤충사육연구동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연구현장도 방문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산학협력단과 해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행사를 열고 꾸준히 소통과 융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1사 1교 금융교육 실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사 1교 금융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가기 위해 23일 전주에서 현장간담회와 금융특강을 실시했다.

전북지역 초·중·고 학교장 및 결연 금융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진웅섭 원장은 "1사 1교 금융교육이

금융권의 대표적인 금융교육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우수 강사 육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아직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웅섭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전북지역의 '1사 1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북은행과 1사 1교 결연을 체결한 전주기린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인재용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